

[바둑]



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바둑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바둑 명소 만들기에 나섰다. 사진은 이세돌 9단의 고향인 신안의 '이세돌 기념관' 전경(오른쪽)과 개관 기념 대국을 알리는 홍보물. (신안군 제공)

신안-이세돌 기념관 개관, 영암-바둑테마파크 조성

전남은 지금 '바둑 명소' 경쟁중

강진군도 김인 국수배 아마대회 등 열기 후끈

신안군 비금도에 문을 연 이세돌 기념관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등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바둑 명소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세돌 9단의 고향 비금도에 들어선 바둑 기념관은 개관 3개월여 만에 5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신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기념관을 찾는 이들은 '사계절 해상 관광지'인 흑산도와 홍도를 구경하고 뱃길로 달려와 바둑 대국장, 이세돌 기사의 관련 자료 전시실, 추억의 공간과 함께 비금명 사심리 해수욕장, '망각의 길' 등을 둘러본다고 군은 전했다.

이 기념관은 개관 기념으로 '박카스배 천원전' 바둑결승 대국 제2국이 현지에서 열려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신안군에는 바둑에 관한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데 고운 최치원(崔致遠·857~?) 선생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를 둘러 신선과 바둑을 뒀다는 '바둑 바위'가 실제로 있다. 비금도 수대마을의 우물물 현지 주민들이 그의 호를 따 '고운정'이라 부른다.

고대 일본바둑의 전수자인 왕인 박사와 한국바둑의 기성 조훈현 9단의 고향인 영암군도 바둑테마파크 조성에 나서고 있다.

영암읍 회문리 일대 49만5000㎡

규모의 부지에 조성되는 바둑테마파크는 바둑 관련 각종 자료를 전시하고, 바둑경기장과 연수원 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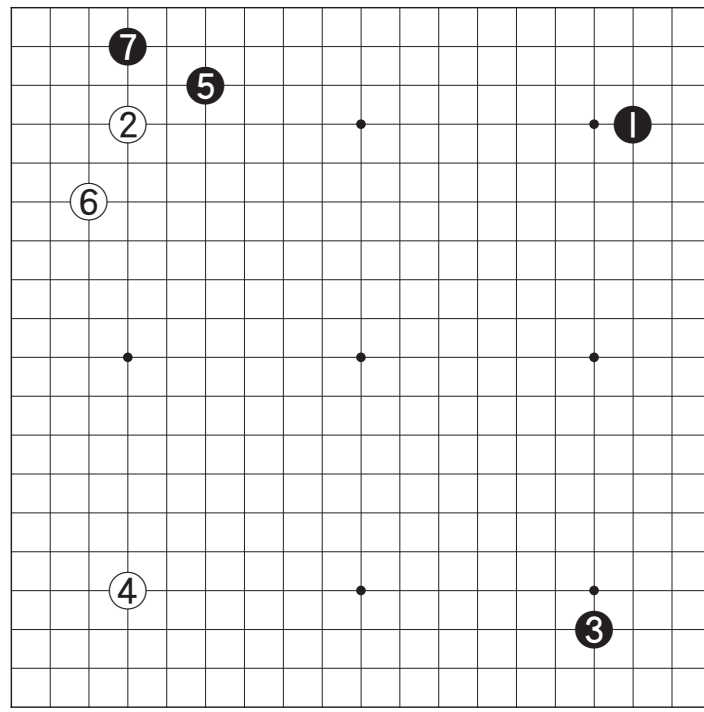
또 바둑관, 바둑학당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영암군은 올해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7억원을 확보, 오는 2012년까지 테마파크를 완공할 계획이다.

영원한 국수 김인 9단의 고향인 강진군도 아마추어 바둑대회를 열어 바둑 열기를 끌어 모으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11월 강진군종합체육관에서 '2008 김인 국수배 국제 시니어 아마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김인은 지난 1962년 일본으로 건너가 오다케, 리하이평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조원배·박재신·남철희 기자 wncho@



제4기 원익배 10단전

광주출신들의 결승전

결승1국 1보(1~7)

지난 1월 18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기 원익배 10단전 결승 3경기 제2국에서 16세의 광주출신 박정환 3단이 역시 광주출신 백홍석 6단을 종합전적 2대 0으로 몰리치고 생애 첫 본격적인 우승컵을 차지했다. 박정환이나 백홍석은 모두 이 지역 출신의 유망주로 한국바둑의 기대주들이다. 비록 우승은 박정환이 차지했으나 백홍석은 몇년전부터 정상권을 꾸준히 노크해 온 실력파로 이들의 열전모를 소개한다. 백홍석은 1986년생으로 1993년 생인 박정환의 7년 선배가 된다. 2001년 입단했으나 2006년 입단한

박정환보다는 입단으로는 5년 선배. 입단전부터 세계 시니어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일찍부터 기대를 받았으며 2006년에는 SK가스배 신인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제11회 삼성화재배 4강에 진출하는 등 맹활약을 바둑계를 놀라게 했다. 박정환은 13세에 입단한 유망주로 입단 2년차인 2008년 마스터스 챔피언십에서 역시 광주출신인 김지석을 2대 0으로 몰리치고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여 그 기대와 가능성을 떨친 바 있는 한국바둑의 기대주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프로와 격돌 '아마 4인방' 확정

유신환, 정찬호 꺾고 LG배 아마선발전 우승

프로와 경쟁 할 아마 4인방이 결정됐다. 지난 21~22일까지 이틀간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14회 LG배 세계기왕전 아마선발전에서 한국기원 연구생 출신의 유신환 아마6단이 정찬호 아마6단을 몰리치며 정상에 올랐다. 유신환은 16강전부터 이상현 아마7단, 하성봉 아마7단, 유병용 아마6단 등 기존의 아마 강자들을 모조리 물리치며 기대를 모았다.

정찬호, 준결승까지 오른 김용주 아마5단, 유병용 아마6단은 오는 4월14일부터 열리는 LG배 예선 1회전 출전 자격을 얻어 프로들과 본선타켓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현재 아마랭킹 1위는 이상현 아마7단, 2위 함영우 아마7단, 3위 김남훈 아마7단, 4위 송홍석 아마 7단, 5위 하성봉 아마 7단 순이다. 유신환은 9위에 랭크돼 있으며, 정찬호는 22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유신환과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어긋난 포석' 이세돌 참패 조명

월간바둑 4월호 나와

월간 '바둑' 4월호가 나왔다. 이번 4월호에는 제6회 응지배 결승1~3국이 열린 싱가포르의 7박8일 여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독자들에게 생동감 있는 현장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 해외 취재를 전담해온 기자들이 응지배 경기 뒷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 3경기에서 이세돌 9단이 구리 9단에게 2-0 참패를 당할

Advertisement for '바둑' magazine featuring a photo of a man and text about the magazine's content.

Table with financial data for '제37기 결산공고' (37th Financial Statement) for Daechadaejoyoung. It lists various categories like '자산' (Assets) and '부채' (Liabilities) with corresponding amounts.

Advertisement for '결산공고 접수안내' (Financial Statement Submission Guide) for Kwangjuilbo,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deadline.

Large advertisement for '목장용지급매' (Pasture Land Sale) with details on location, area, and contact information.

Table listing real estate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details like '소재지' (Location), '면적' (Area), '가격' (Price), and '비고' (Remarks).

Advertisement for '침.뜸.경락 공개강좌' (Acupuncture, Moxibustion, and Acupuncture Public Course) with details on course content and contact information.